Monthly Bultube

뉴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적지 않은 스님들과 불교단체들이 유튜브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이 '불교'라는 한정된 주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에 봉착했다. 이런 와중에 이를 뛰어 넘은 불교 유튜브가 있다. 바로 불교계 명사들의 강연, 특히 스님들의 강설이다. 코로나 재확산 시기, 사찰로 향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다시금 이러한 주제의 콘텐츠를 찾아 보며 마음상담을 받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강설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애를 가졌습니다'
youtu.be/G2_ldkzHxiM

SCAN ME

비대면 시대를 맞아 법륜 스님이 이끄는 정토회, 행복학교 등은 비대면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의 고를 어루만지는 즉문즉설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답답하면 물어라"를 캐치프레이즈로 진행 중인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116만 명이 넘는 국내 불교유튜브 중 최다 구독 채널이다.

2011년 채널 개설 이후 법륜 스님은 한 주에 2건 이상씩 꾸준히 즉문즉설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현재까지 1830회의 영상이 게재되어 있다.

최근 가장 인기가 많았던 영상은 1816회인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애를 가졌습니다' 영상이다. 약 27분 가량의 영상으로 유튜브 콘텐츠 중에서는 긴 편이지만, 열독률은 매우 높다.

여기서 법륜 스님은 "욕심이 망친다. 미련을 갖지 말고 선택해서 자유로워지라"고 조언한다. 남편에게 끄달리는 그 마음 조차도 하나의 욕심이라는 것이고, 남편이라는 외부 조건을 떠나서 본인을 면밀히 살피고 자유로워지라는 것이었다. 스님에게 묻기엔 다소 세속적인 질문이지만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에는 이러한 굴레가 없다.

댓글도 4500개가 달리는 등 답답함을 호소하는 상담자에게 수많은 이들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댓글에는 "저도 남편이 바람을 폈을 때 죽을 것처럼 힘들었다. 이혼 한 지 6년 됐는데 어려운 사람 돕고 잘 산다.", "타인으로 인해 만들어진 행복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은 진리다." "살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강설

정목 스님의 유나방송
'인생의 해답을 밖에서 묻지 마라'
youtu.be/OJTWRkWKpSE

SCAN ME

불교계 대표 멘토 중 한 명인 정목 스님은 오랜 세월 라디오 방송인 '유나방송'을 통해 세상 사람들과 소통했다. 대중의 어려움을 듣고 따뜻한 말로 어루만지는 스님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 많았고, 스님은 이러한 유나방송을 2009년 1월 유튜브 채널로 새롭게 가꾼다. 세상을 유익하게 만드는 마음공부전문방송 유나는 정목 스님이 중심이 되어 뜻있는 사람들이 함께 영상을 통해 마음의 치유와 평화를 선물하는 곳이다.

정목 스님은 "거대한 바다도 또 한 방울의 물이 모여 이루어지듯,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이 모여 커다란 세상을 이룬다. 세상 모든 존재들은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 낱개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려있는 의식의 차원에서 보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구독자는 현재 12만 2000여 명으로 정목 스님의 강설 외에도 '박문호 박사의 생명현상' 특강, 여러 석학을 찾아가는 유나아카데미, 정목 스님의 시낭독 등 다양한 콘텐츠가 올라오고 있다. 최근 가장 조회수가 많은 영상은 정목 스님의 '육군 3사관 학교 초청 강연'인 '인생의 해답을 밖에서 묻지 마라' 영상이다.

7월 4일 업로드된 이 영상은 조회수 7만 6000여 회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뭘 하면 좋을까?' 등의 화두에 있어서 일종의 해답을 제시한다. 약 42분의 긴 영상으로 스님은 여기서 강연 시작과 함께 '비교하는 버릇 떠나보내기' '마음의 그릇을 키워라' '자신의 역할과 자기 구실 잘하기' '다함께 명상의 시간' 등을 통해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방향을 제시한다.

좋아요는 3600여 회로 "성공과 겸손이 형제라는 말씀에 큰 공감을 하게 됐다." "부드러운 스님 음성에 절로 공부가 됩니다. 소중한 법문 감사드립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강설

법상 스님의 목탁소리
'삶이 꽃이 되는 순간, 참된 육바라밀'
youtu.be/OdxpUdi5iyk

SCAN ME

법상 스님은 동국대 대학원에서 불교를 공부하다가, 도문 스님을 은사로 발심 출가한 뒤 오랫동안 포교 현장에 임하고 있다. 스님은 군승(軍僧)으로 재직하며 군인들에게 마음공부를 전했고, 동시에 인터넷 마음공부 모임인 '목탁소리'를 이끌었다.

현재는 예편하여 사단법인 대원회 부산 대원정사 주지로 있으며, 유튜브 '법상 스님의 목탁소리', 불교TV(BTN), 목탁소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연 닿는 이들과 소통하고 있다.

법상 스님의 설법은 자상하지만 파격적이고, 쉽지만 강력하다.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 없음에도,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괴로움이 쉬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법상 스님의 목탁소리 구독자는 12만 4000여 명이다. 대원정사에서 실시한 일요법회를 유튜브로 중계하며, 이를 화요일과 목요일 재편집하여 올린다.

최근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온 콘텐츠는 6월 26일 게재된 '돈오26, 삶이 꽃이 되는 순간, 모든 문제를 단박에 해결하려면, 참된 육바라밀'이다.

스님은 이 영상에서 육바라밀 수행에 대한 방법과 공덕에 대하여 자세히 설한다. 조회수는 12만 7000여 회로 많은 이들이 댓글을 통해 법문에 대한 감사함을 전했다.

탐방

EBS컬렉션 라이프스타일
'법정 스님의 불일암'
youtu.be/YtO3mWHpXHs

SCAN ME

송광사에서 대나무 숲길을 따라 한참 걷다 보면 소박한 암자가 하나 등장한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무소유 정신으로 잘 알려진 법정 스님이 손수 짓고, 17년간 수행한 불일암이다. 세 칸짜리 열네 평 작은 본채와 옛 암자의 자재를 재활용한 하사당, 재래식 해우소까지 법정 스님이 살던 그 모습 그대로다. 작고 불편하기 그지없는 이 집에서 법정 스님은 무얼 깨달았을까.

법정 스님이 나이 쉰둘에 처음 들인 제자, 덕조 스님. "딱 10년만 살아 보라"던 스승의 유지에 따라, 덕조 스님은 불일암에서 홀로 수행 중이다. 스승은 왜 그런 유지를 남겼을까. "꿈이 많고, 혀가 있는 사람은 살 수 없다" 적혀 있는 법정 스님 육필 상량문. 세상에 처음 공개되는 그 글에서 스승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EBS컬렉션 라이프스타일은 우리의 삶 속의 다양한 모습을 전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이 채널의 세부콘텐츠 '건축탐구, 집'에서는 6월 26일 '송광, 무소유의 집'으로 불일암에 대해 다뤘다. 법정 스님이 직접 짓고 칩거한 집, 자신이 떠나면 '불일암'을 지키라는 스승의 유언, 스님은 왜 그런 유언을 남겼을까라는 궁금증에서 영상은 시작한다. 불일암에 대한 소개와 함께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과 가르침에 대해 되새길 수 있는 영상이다. 노은주, 김호민 건축가들이 덕조 스님을 만나 여러 가르침에 대해 듣는 이 영상은 조회수는 23만 2000여 회로 150여 회의 댓글이 달렸다.

탐방

EBS다큐
'한국기행, 은둔의 낙원'
youtu.be/gyX7PH7BXJc

SCAN ME

남한의 금강산으로 불릴만큼 수려한 산세와 다양한 비경을 간직한 곳 '대둔산'은 산 구비마다 전설을 품고 있는 곳이다. 해발 670m 아찔한 협곡을 가로지르는 구름다리는 대둔산의 절경을 한눈에 굽어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대둔산에는 숨은 암자 석천암이 있다. 암자로 오를 때 꼭 한 번은 들른다는 선녀폭포에서는 짙푸른 녹음사이로 세찬 물줄기가 쉼 없이 이어진다. 시원한 폭포수 소리는 가던 걸음도 멈추게 한다. 산길을 부지런히 걷고 또 걷고 번잡한 속세와 멀어져갈수록 마음 속의 번뇌도 저만치 사라져가는 듯 하다.

이 석천암에는 15년 째 주석하고 있는 천산 스님이 있다. 첩첩산중의 암자에서 정진하고 있는 스님을 EBS다큐팀이 찾았다.

7월 22일 업로드 된 EBS다큐의 '한국기행, 은둔의 낙원-왜 산으로 오셨나요?' 편에서는 15년 전 우연히 석천암을 찾아든 후로 이곳을 평생의 수행터로 삼은 천산 스님의 사연을 담았다.

바위틈에서 맑은 물이 샘솟는다 해서 붙은 이름 '석천암'은 암자의 창건설화도 흥미롭다. 암자에 있는 것이라고는 스님의 생활공간과 법당이 전부다. 아는 산행객들이 소원을 빌고 간는 기도처 외에는 암자 구경은 금방 끝이 난다. 먼 동이 터 올 무렵 새벽 예불로 하루를 시작하는 천산 스님은 이 산 속에서 변치않는 일상을 이어가며 정진하고 또 정진한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요한 위로와 평안에 대한 또 다른 가르침을 전한다.

이 영상 조회수는 43만 2000여 회로 296개의 댓글이 달렸다. "욕심을 얼만큼 내려놓아야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안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데, 사람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갈 뿐" 등의 댓글이 남겨져 있다.



